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축구 충지드래곤즈 · 족구 사설사암연합회 우승

주최  불교총지중
 종목 축구, 족구
 주관  FC부다. 충지드래곤즈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2년 10월 11일

음력 8월 26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6년 제155호

화합과 통일의 불꽃을 쏘아올리다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종립 부산동해중학교에서 봉행 3,000여명 동참



불교총지중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봉행되었다. 행사가 진행되기 3시간 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부산지역 불자, 총지중 교도 3,000명이 모여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식전행사로 동해중학교 풍물패 두드림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위드 오케스트라의 '위풍당당행진곡'으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제1부 범회는 도현정사(마산 운전자 주교)의 사회와 통영 단향사 경원정사의 집교로 열렸다. 총지중 연합합창단의 찬불가에 맞추어 총지중 100여명의 스승님들이 행사장 중앙통로를 통해 입장 법단이 마련된 무대 위로 올라 장관을 이루었다. 효강 종령 예하의 입장으로 범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축비 소리가 울렸다. 총지중의 정통밀교 의례에 의해 봉행된 범회는 동참한 교도들뿐만 아니라, 내빈을 비롯한 부산불자들에게 총지중의 장엄한 의례와 수법에 동참하는 귀중한 범회를 마치고 이어 개회식이 열렸다.

총지중 통리원장 지성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음악제에는 각기 가족을 돌보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렵게 시간을 내 부처님 말씀을 음성공양으로 전하는 총지중 전국 연합합창단

의 공연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대중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법음으로 전해드릴 것입니다."며 동참해 주신 부산시민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지중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동생동사, 동고동락의 대 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상부상조의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 그러면 행복과 평화의 물결이 넘쳐흐를 것입니다."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동참하신 모든 불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서원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사무총장 범산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음악이라는 공통주제 아래 화합의 메시지가 널리 퍼져 북녘 동포에게도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불교 음악을 통해 사회 화합을 선도하는 총지중의 발전을 서원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장이자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의원은 "정통밀교종단 총지중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종립동해중학교가 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며 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총지중이 마련한 작은 정성을 전달하는 후원금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후원금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단법인 단

미, 다문화 가정 터너민, 새터민 김선희, 이송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동해중, 평양예술단 등에게 지성통리원장이 직접 전달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문테 가오리씨에게는 총지중 부산 정각사 자비회에서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범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스님, 수석부회장 화산스님, 부회장 범민스님, 자인스님, 진각종 부산경남 교구장 효원정사, 진각종 명륜심인당 주교이자 전 통리원장 회정정사, 티룩종 총무원장 송정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금주스님, 이진복 국회의원, 조길우 동래구청장, 이병두 문화관광부 중무관,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 김윤순단장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음악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다.

1부 범회를 마친 무대는 동해중 풍물패 두드림의 난타공연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부산불교방송 지은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서울 마니합창단, 대구 금강합창단, 부산 만다라합창단, 가야금병창 강세영국악인, 비유 중창단, 관무용단, 평양예술단, 초침기수 조항조의 무대에 이어 총지중 연합합창단의 웅장한 합창으로 이어졌다. 첫 무대에 오른 서울 마니합창단은 김양희 선생의 지휘로 '정진의노를 저어',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대구 금강합창단

은 배해근 선생의 지휘로 '꽃향기 가득한 날', '축복' 두곡의 찬불가를 불렀다. 27년 전통을 자랑하는 금강합창단은 한 여름 무더위를 이기고 얻은 값진 화음을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부산 만다라합창단은 박윤규 선생의 열정적인 지휘로 '아리랑 모음곡', '즐거운 날' 두곡을 연주. 주관 합창단으로 부산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총지중 연합합창단은 이번 행사의 주관 지휘자인 박윤규 선생의 지휘로 120여명이 무대를 꽉 채웠다. '얼마나 다향야 겨울 마음 달을까', '아름다운 세상', '경복궁 타령', '창교가'를 연주하고,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무대를 마감했다. 합창단 외 공연에서는 총지중 교도 국악인 강세영 명창의 무대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초대기수 조항조씨의 무대에서는 흥에 겨운 관객들의 열기로 동해중 운동장을 채웠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1,000여발의 폭죽으로 마감한 불교총지중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는 '사회화합과 계층 간의 융화의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을 부산 하늘에 불꽃으로 새기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불교 총지중은 앞으로도 사회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부산 동해중= 김종열 기자.

서울 남서부지역 교화의 전진기지

서울 벽룡사 헌공불사 10월 16일 봉행 예정

서울 남서부 지역 교화의 전진기지 벽룡사(주교 범일정사)가 이전불사를 완료하고 10월 16일 헌공불사를 봉행한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497-1번지에 소재한

벽룡사는 대지 206㎡에 6층 건물로 2층과 3층을 사원으로 사용한다. 벽룡사 주교 범일정사는 "서울대입구에 있던 구 사원에서 이룬 역대 스승님

들의 원력과 서원을 바탕으로 교화와 불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헌공불사에 많은 스승님들과 교도분들이 동참하시어 원력을 모아주시기를 서원합니다."

며 헌공불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다.

벽룡사는 총기 7년 3월 20일 일광서원당 설단불사를 시작으로 개설, 총기17년 12월 24일 구 벽룡사 건물을 매입하여 본존을 이전, 사원명을 벽룡사로 명명하였다. 이번 헌공불사를 통해 벽룡사는 서울 남서부 중심 사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밀교의 대중화

제80회 추계강공회

|일시 총기 41년 10월 17일(수)~10월 19(금)

|장소 불교총지중 통리원

|대상 종단산하 스승님 일동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개최하오니 전국 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정통밀교

호국불교

실천불교

제19대 국회 정각회 출범 기념법회

-전반기회장에 정갑윤의원(새누리당) 선출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19대 국회 정각회는 9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불교총지종 총무원장 지성정사, 종단협의회 회장 지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정갑윤 신임 국회정각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원불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불제자로서, 일심동체가 되어 부처님의 정법구현과 선양에 솔선수범하고 불교의회의 견인자 역할을 다 하겠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중도연기를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화해와 용서,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상생과 공존의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다짐했다. 부회장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고불문을 통해 “국회 정각회 불제자 가족 모두가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행동하는 참사람이 되도록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고, 국회가 언제나 화합하며 국민들 모두가 늘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정각회에는 새누리당 30명, 민주통합당 9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2명 등 모두 42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계종 종회 ‘산중총회법 개정’

본사주지 돈선거 없이 만장일치 합의선출기로

조계종 19회 중앙종회(인사회)는 오후 속개하고 ‘산중총회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번안은 본사주지 만장일치 합의선출을 골자로 했다. 이는 후보자 선출은 선거를 지양하고 만장일치 합의의 선출을 하는데 있으며, 본사주지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비불교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본사주지 자격을 법계 종덕이상, 승랍 25년 이상, 연령 70세 미만인 비구 중에서 종무행정, 입법, 사법, 선교육의 경력을 일정기간 충족하도록 했다. 비구니스님은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만큼 정덕이상인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 1인 등록시 개회 정족수 관계없이 후보자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시 출석한 구성원 출석한 구성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만장일치로 간주기로 했다. 본사주지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와 다수결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11인 이상 21인 이내의 추천위를 구성해 뽑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을 위임하되 추천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산중의 고유방식으로 본사주지를 추천하기로 했다. 행위 제안에 있어서는 타후보자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각종집회의 개최, 1년이내 일체의 금품및 재산상 이익제공행위, 말사주지직 제공하거나 약속한 행위, 기타 중범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징계는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징계확정 10년동안 산중총회 구성원및 후보자(각급선거권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하고, 모든 중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금품및 재산상 이익제공시 해당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시켰다.

천태종, 구인사서 삼회향놀이 시연 영산대재 · 생전예수재 회향식 봉행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이 9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삼회향놀이 학술회의와 시연 및 영산대재 ·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구인사 삼회향놀이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바 있다. 오후 2시부터는 설법보전 앞마당에서 삼회향놀이 시연이 펼쳐졌다. 시연은 총 5과장으로 진행됐다. 제1과장(도입)은 △길놀이 △법고춤 △합장계, 제2과장(땅설법)은 범주와 바라지의 대사, 제3과장(법패와 작법)은 △법패 △작법 △화형, 제4과장(백희잡가)은 범주와 바라지의 대사 △공양간 보살의 장기자랑 △위의 등 다른

이들의 호응, 제5과장(회향)은 △범주와 바라지의 대사 △대중과 함께 회향하는 모습 △회향법문 순으로 펼쳐졌다. 천태종은 삼회향놀이 시연이 끝난 직후 동문당 앞마당에서 2천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대재 ·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5일간 모든 대중의 정성을 담아 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 희망을 잃지 말고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오전 10시 인광당 4층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구인사 삼회향놀이보존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감사원장)은 대회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불교문화가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구인사 삼회향놀이가 그 몫을 담당하리라 확신한다”면서 “불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삼회향의 깊은 뜻을 많은 이들에게 널리 전하고, 한층 더 발전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축사를 통해 “재의식이 끝나고 참여자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는 뒷풀이인 삼회향놀이를 구인사에서 선보이는 것은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삼회향놀이의 발전 방향을 연구해 오늘을 사는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의 법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영진 前 청주대 교수는 ‘삼회향놀이와 문화재 지정의의’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삼회향놀이는 누구나 서원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실현하는 행위로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이타적인 회향이다”며 “삼회향놀이는 음악 · 무용 ·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적 불교민속으로, 승과 속이 놀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보존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관음종 직할 철원 선계사 낙성

“건평 6000평 300명 동시 수련토록”



관음종이 오랜 숙원이었던 수행도량, 기도도량인 직할사찰 철원 선계사 낙성법회를 9월 23일(음8.8)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낙성법회는 1부 본존불 및 4보살 점안 봉불식, 2부 낙성법회순으로 진행됐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2번지에 위치한 관음종 선계사는 1만여평의 부지에 대웅보전을 비롯한 만세루, 선방, 삼성각, 교육 수련시설, 회의실등 건평 6000평의 20여동의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60개 방사가 있어 동시에 300명 이상이 수행할 수 있는 수련공간을 갖추고 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초대주지에 도현스님(총무원 교무부장)을 임명하고, 가람불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홍파스님은 법어에서 “철원 복계산에 대불보전 조성하고 점안하니 새로운 부처님인연 복전이 될 것이다. 우리 종단에 대내외에 자랑할 만한 가람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며 “선계사는 앞으로 종단 스님들의 복지 수행도량, 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계사는 1968년 경전 대종사가 1968년 용문산 기슭에 용승사를 창건후 1971년 동대문구 답신리로 이전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9/4 10,000	기로 사홍화 9/24 10,000	서울경인교구 9/18 1,747,000
개천사 한재호 9/12 10,000	기로 상지화 9/24 10,000	선립사 수정 9/20 50,000
개천사 이희강 9/12 10,000	기로 수중원 9/24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9/14 55,000
개천사 송대겸 9/12 10,000	기로 총지화 9/24 10,000	수인사 김봉기 8/28 10,000
개천사 송상규 9/12 20,000	기로 선도원 9/24 10,000	수인사 장영택 9/4 50,000
개천사 강금신 9/20 10,000	단음사 천공 9/5 4,000	승천사 원봉 9/13 10,000
건화사 이연호 8/30 10,000	단음사 법연지 9/19 10,000	승천사 지선행 9/13 10,000
관성사 정정희 8/27 10,000	덕화사 하순옥 8/31 5,000	우리사랑 손경옥 9/15 4,025
관성사 박현숙 8/29 10,000	덕화사 하순옥 9/18 5,000	나누미
관성사 황성녀 8/30 10,000	밀인사 정정희 8/29 5,000	정각사 박후회 9/20 10,000
관성사 인선 9/24 20,000	밀인사 이재갑 9/10 20,000	지인사 승효계 9/13 10,000
기로 해정 8/29 10,000	백월사 김현중 8/28 10,000	지인사 허성동 9/21 30,000
기로 대관 9/24 10,000	백월사 조미정 9/18 10,000	통리원 장동욱 9/11 10,000
기로 대자행 9/24 10,000	법천사 시정 9/24 10,000	통리원 김정연 9/24 5,000
기로 밀공정 9/24 10,000	법천사 원만원 9/24 10,000	통리원 김지영 9/24 5,000
기로 법수원 9/24 10,000	벽룡사 무명씨 9/4 10,000	혜정사 김경미 9/12 20,000
기로 법장화 9/24 10,000	벽룡사 무명씨 9/4 10,000	화음사 강순란 8/31 5,000
기로 법지원 9/24 10,000	벽룡사 양정현 9/16 10,000	화음사 무명씨 9/12 10,000
기로 불멸심 9/24 10,000	벽룡사 양지현 9/16 10,000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월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생활불교의 정신을 받들어 새 종풍을 이루자

-원정대성사 제32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 제32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8일 서울 원정기념관을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효강종령은 멸도절 법어를 통해 “우리들은 원정 대성사의 거룩하신 생활불교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시대에 맞는 교화 방안을 개발하여 더욱 더 큰 종단으로 성장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 합니다.”며 원정대성사의 생활불교의 정신을 일깨워 종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설했다. 이어 지성통리원장은 “변함없이 종조님의 멸도절을 맞아 추모의 정으로 찾아주신 교도님들과 스승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창종 정신을 이어나가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며 참석한 교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교도들은 한국불교에 밀교의 용어를 최초로 정립하시고, 준제법을 도입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신 원정 대성사의 법력이 세세생생 영원히 이어지기를 서원했다.

총지사 = 김종열기자

총지종 부산·경남 신정회 신인록 지회장

통일음악예술제 후원금 500만원 회사



신인록 총지종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이 10월 6일 봉행되는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에 보탬이 되기를 서원하며 500만원을 회사했다. 9월 18일 오후2시 신인록 지회장은 부산 정각사에 마련된 예술제 운영위원회(위원장 수현정사)를 방문 한자리에서 “총지종 부산·경남 교구의 큰잔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정회에서도 물심양면 도움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예술제가 원만히 봉행되도록 불공 서원하겠습니다.”며 운영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인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선 총무부장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500만원을 회사했다.

부산 정각사 = 김부강 교무

불교총지종 주최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성료

축구 우승 총지드레곤즈, 족구 우승 전국사설사암연합회



불교총지종이 주최하고 총지드레곤즈와 FC 붓다(회장 이동격)가 공동 주관한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가 9월 15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불자 축구 동호인들의 친목과 교류를 통해 생활 불교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의 불자 축구 동호회 8개 팀이 출전, 축구와 번의 경기로 족구 경기가 열렸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 에서 지성통리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불자 축구동호회의 친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총지종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찾을 수 있는 행사와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출전한 선수 들을 격려했다. 대회 조직위원장 화령 정사는 “불자 축구 동호인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한 FC 붓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대회 준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스님은 축사를 통해 “만다라배 축구대회가 불자들의 교류와 친목도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승가대, FC붓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총지드레곤즈, 불광사, 봉은사·총무원 사자후연합, 전국사설사암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등 총 8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됐다. 축구에서는 총지드레곤즈와 전국사설사암연합회가 결승에 진출 연장 승부차기 끝에 총지드레곤즈가 우승을 차지했다. 번의 족구 경기는 FC 붓다와 전국사설사암연합회의 결승에서 전국사설사암연합회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하남종합운동장=김종열 기자

불교적 인성을 바탕으로 명문으로 재도약

-제45주년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기념식 개최



동해중학교는 훌륭한 선배들의 피 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부산 최고의 명문 동해중학교가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자.”며 전통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통리원장은 축사에서 “총지종은 생활 불교의 실천을 통해, 전인적 불교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인재 양성은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부산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켜 가야 하겠습니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가 제창을 끝으로 1부 기념식을 마치고, 2부에서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1967년 개교해 이진복 동래구 국회의원, 조현오 전 경향정당장 등 16,966명의 훌륭한 인재를 배출했다.

부산 동해중학교=김종열기자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개교45주년 기념식이 9월 21일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통리원장과 수현 부산·경남 교구장, 도현 마산 운전사 주교, 덕광 울산 실보사 주교, 정각사 법상정사, 법선 학교법인 사무국장 및 재학생 학부모 등 약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근속교사 표창과 총지종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졌다. 근속교사 표창에는 30년을 맞는 임종옥 교사, 한문술 교사, 남영옥 교사 그리고 20년을 맞은 김영생 교사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총지종 장학금은 2학년 서재호 외 5명에게 전달되었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명문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 다르마

위드 다르마는 진리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2012. 10



● 통권 108호 표지

Contents

- 불교이야기.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_화령정사
- 수행이야기. 임종 시의 한 생각 사이_성운대사
- [테마기획] 입을 맑게 하라_본각스님
- 진언수행의길. 혼자오인 법경정사
- 수행의 창. 어진 벗은 초승달과 같다_명성스님
- 만다라세상. 연꽃처럼 사는 삶_지정정사
- 마음의등불. 시시비비도무관_의현대사
- 행복찾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_지연전수
- 차양기속으로. 경청하기의 위대한 힘
- 씨앗한알. 오늘... 살고 싶은 방법
- 빠알리경전읽기. 닭과 같이 너 자신을 멀리하라
- 진리의 길. 죽음에 관하여_보정
- 아주 특별한선물. 단순한 지혜_달라이라마
- 이달의경전. 무량수경
- 이야기꽃. 올빼미의 사랑_김지수
- 저예의뜨락. 한 순간도 헛되이 버리지 말라_태교보우
- 디딤돌. 아주 특별한 심어
- 불에 달구어진 돌인 줄 알면 누가 잡으랴
- 생각하는 우화. 살생과 불심
- 함께보는불교미술. 소를 타고 경전을 쓰노라
- 산책. 물안개_류시화
- 걸망의담기이야기. 나도 그런 너를 담고 싶다.
- 건강한방상. 가을에 담아야 더욱 맛있는 가을장아찌
- 우리말바루기. 아이 손에 휴대전화를 쥐어주나요? | 바라지

☆ 걸망에 담긴 이야기

비록 노랑던 꽃도 제 빛깔을 잃어 밟아지면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씨앗으로 마무리하는 해바라기의
 여정이 참으로 정직해 보입니다.
 우리들도 시가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고
 말이 제 목을 하는 꽃과 나무들처럼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해야하지 않을까요?
 L66

- 뽀, 나도 그런 너를 담고 싶다. 중에서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종 위드 다르마 편집부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22-047811-13-128 예)불교총지종
-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불교의 선정 12

사념처 수행의 요령과 준비단계

사념처 수행은 오계 수지와 정견으로부터 바른 생활 자세가 사념처수행의 필수 조건



화령
(중앙교육원장)

사념처 수행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열반이다. 즉,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다. 사념처는 열반으로 향하는 일종의 수행법이며 거기에 네 가지가 있으므로 사종법이 되는 것이다. 사념처는 마치 네 개의 문을 가진 성문과도 같으며 그 가운데에 열반이라는 전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길은 성 가운데의 열반이라는 전당으로 향하게 된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각각을 성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각각의 문이 모두 열반으로 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념처 중의 어느 하나만 닦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념처의 수행을 통하여 우리의 네 가지 전도망상을 제대로 제거할 때에 열반이라는 전당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 방법으로 신념처 수행에는 14종의 방식이 있으며, 수념처에는 9종의 방식이 있고, 심념처에는 16종의 방식이 있으며 법념처에는 5종의 방식이 있다.

이러한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잡아함경》에 의하면 “先淨其戒，直其見，具足三業，然後修四念處(먼저 계를 깨끗이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며 삼업을 구족한 다음 사념처를 닦는다)”라고 설하고 있다. 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계를 지켜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지 않으면 사념처 수행은 불가능하다. 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심신이 청정하게 되지 않고서는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막행막식을 하면서 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끔은 자정 도인이라 사람들이 이상한 행색을 하고 봉두난발로 뿔개를 이룬 듯 세간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무리 난행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무질서하면 그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계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오계는 다 알다시피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를 말한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으로 자비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불살생의 의미

는 반드시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불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자기에게 정당한 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모두 투도가 된다. 그리고 분에 넘치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투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가 비방, 중상, 모략하는 말들도 모두 망어죄에 해당된다. 망어와 더불어 거친 말,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구업을 다스리는 데에는 필히 경계해야 할 조항이다.

불음주는 반드시 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집착을 가져오는 마약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습관성 음식물이나 기호식품도 여기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본 도리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생사윤회와 선악응보를 철저히 믿고 열반해탈의 증득이 반드시 부처님의 가지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다. 외도들도 불교와 거의 흡사한 수행을 하지만 결국 불교와 같은 수행의 궁극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수행에 임했기 때문이다.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배제해야 할 잘못된 견해를 불교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오견(五見)이라고 한다. 오견은 신견(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급취견(戒禁取見)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먼저 신견이란 오견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번뇌로서 세간에 ‘나(我)’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 방편의 아집으로서 ‘아견(我見)’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심신을 오온으로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여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유발하게 한다. 말하자면, 심신에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변견이란 것은 ‘나’라는 것에 대하여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단견(短見), 죽어도 ‘나’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상견(常見)의 양 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말한다.

사견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세간에 인과와 윤회라는 것이 없으며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 마디로 연기의 도리와 인연화합의 이치를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견해가 사견이다.

견취견은 자신의 견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예를 든 신견, 변견, 사견 등을 자신의 견해로서 올바른 것으로 잘못알고 집착하는 것이다.

계급취견은 잘못된 계율을 바른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몸을 확대하거나 동물의 흉내를 내거나 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말한다.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외도들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계급취견에 의하여 수행하면 아무리 닦아도 바른 길로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분쟁은 이런 계급취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지도자가 어떻게 테러를 부추기고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고 학살을 감행하는가?

이러한 잘못된 오견을 지니고 수행을 하는 것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닦으면 닦을수록 진리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행을 바로하고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여 정견을 지닌 바탕에서 수행을 쌓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념처(四念處)와 사전도(四顛倒)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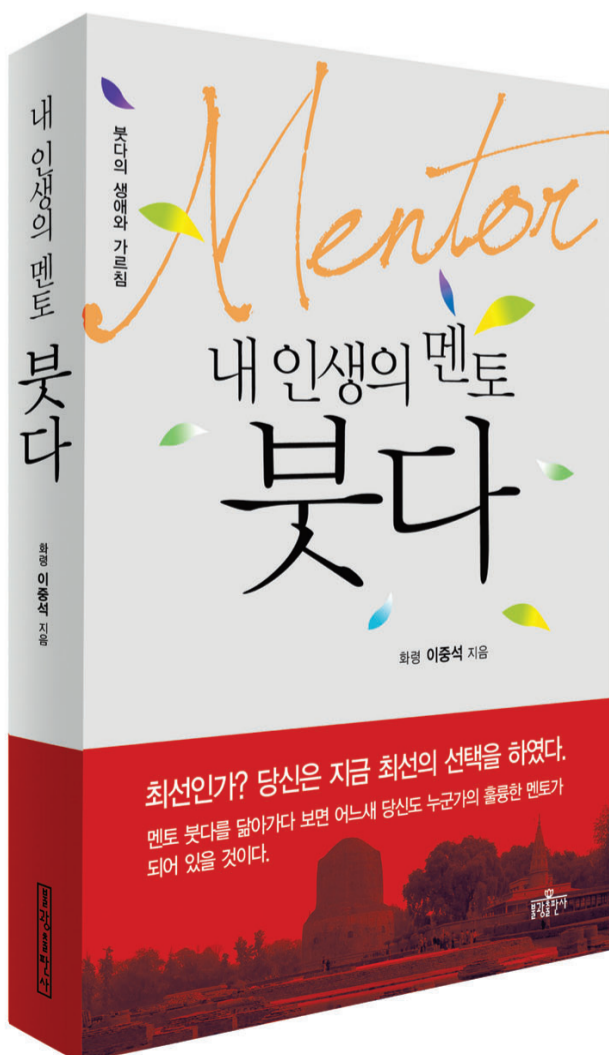
사법(四法)	사념처(四念處)	사종념(四種念)	사전도(四顛倒)
부정(不淨)	신념처	관신부정(觀身不淨) ▶우리 몸의 더러움을 살펴보는 것	정(淨)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것
고(苦)	수념처	관수시고(觀受是苦) ▶괴로운 느낌은 당연히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느낌도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관하는 것	낙(樂) ▶세간의 쾌락에 집착하는 것
무상(無常)	심념처	관심무상(觀心無常)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찰나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임을 관하는 것	상(常) ▶세간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무아(無我)	법념처	관법무아(觀法無我) ▶오온으로 이루어진 가아를 진짜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과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관하는 것	아(我) ▶‘나’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

불사음은 정당하지 않은 음행을 말하는 것으로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성관련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성에 대한 온갖 반대적 행위가 다 사음이다. 사음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집착과 증오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삼가야 할 계율 조항이다.

불망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로서의 정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합리화를 위하여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아첨하는 말 등을 남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망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오계가 가장 기본적인 계로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세상의 모든 분규는 이 오계를 잘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오계는 자신을 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실천 덕목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념처 수행을 한다는 것은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아야 한다.

사념처 수행의 준비단계로서 도 갖추어야 할 것은 “바른 견해를 지니는 것(持正見)”이다. 이것은 우주 인생과 생사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를 지니는 것으로서 불교의 가장 기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중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지상설법

여보, 사랑해....



법일정사 벽룡사 주교

카카오톡 지인으로 부터 받은 동영상 하나가 눈물을 흘리게 한다. 지면을 통해 이 글을 소개 하는 것으로 설법을 대신하고자 한다. 내 능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설법을 할 자신이 없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쭉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출장 가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이에 비빈 밥을 손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려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 올거야?”

“나가 봐야 알지.”

사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 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 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디 갔다 이제와?”

“어. 친구들이랑 술잔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게 오히려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아...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땀인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였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땀어?”

“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나?”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나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앞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러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집가, 나는 우리집 갈테니깐.”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 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 정신이야?”

“.....”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애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봐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될 대로 전이가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삼 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문을 열었을 때, 평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떡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는 데 들렀다들까?”

“코스모스?”

“그냥... 그리고 실내. 꽃 많이 피어 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처럼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나와 같이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관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걸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러구....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 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타면, 우리 얼마 한 이백만원 만 드려. 얼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니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 내어... 영영영....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러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니...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옆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는 늘 잊고 산다. 너무 편해서 이미 식상해져 버렸거나... 사랑하는 마음 꼭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살자. 후회라는 업을 만들지 말자.

진리의 여울

도를 얻은 체험담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처음으로 발심하여 깨달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삼매에 들어갔느냐?”

콘단나비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녹야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최초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음성에서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 중에 먼저 알았다고 인가(印可)하시어 <안나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음성으로 아라한이 되었으므로 음성이 으뜸이 되겠습니다.”

향엄童子(香嚴童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처님께서 모든 유위법(有爲法)을 자제히 살피라는 말씀을 듣고 조용히 방안에 앉아 정진하다가 비구들이 침수향 사르는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향기는 나무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며 불도 아니므로, 가도 닿는 데가 없고 와도 온 데가 없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이 사라져 번뇌가 없어지고 미묘한 향기 그윽하였으니 저는 향기로부터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가 으뜸이 되겠습니다.”

필린다밧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처음 발심하여 부처님을 따라 수행할 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겁지 못한 일을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면서, 성중에서 밥을 빌다가 가시에 밥을 찢어 온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분별이 있기 때문에 아픈 줄을 안다. 아픈 줄 아는 것과 아픈 것이 있더라도 각(覺)의 청정한 심성에는 아픈 것도 없고 아픈 줄 아는 것도 없을 것이다. 한 몸이 어떻게 두 가지 각(覺)이 있을 것인가.' 이와같이 생각한 지 오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문득 공해지고 삼칠일(三七日)동안에 온갖 번뇌가 없어져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저는 각(覺)을 순일하게 하고 몸을 잊어버리는 방편으로도 도를 얻었습니다.”

이때 대세지(大勢至)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와같이 말했다.

“제가 생각하니 과거 초일월광부처님은 저에게 염불삼매(念佛三昧)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전심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깨달고 있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생각하는 두 마음이 간절하면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몸이 그림자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시방세계의 여래(如來)가 중생을 생각하는 것도 어머니 자식 생각하듯 하지만, 자식이 멀리 달아나 버리면 생각한 들 무엇하랴.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현세에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볼 것이며, 방편을 빌지 않고라고 저절로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마치 향을 다루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향광장엄(香光莊嚴)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정리는 최영아 위원



서울.경인교구 벽룡사 헌공불사

서울 신림동 벽룡사 헌공불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할 예정이오니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총기 41년 10월 16일 (화) 오후2시
장 소 서울 신림동 벽룡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97-1)
연락처 벽룡사 (02) 889-0211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다문화 가정, 새터민, 이주노동자, 지역주민 초청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



BBS 본방송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8~10시



여섯 분으로 변화한 관세음보살 ; 육관음보살(六觀音菩薩)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수경, 법화경 등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관세음보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생들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행(信行)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신앙형태를 보이는 것이 관음신앙(觀音信仰)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관세음보살로 여섯 분이 있는데, 이를 육관음(六觀音보살)이라 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보살이므로 이를 변화관음(變化觀音)이라고도 합니다. 이번호부터 여섯 분의 관세음보살, 육관음보살(六觀音菩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의 관자재보살상



관세음보살은 구세자(救濟者), 대비보살(大悲菩薩)

관세음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śvara)라고 하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지배자'라는 뜻으로 북방불교 뿐만 아니라 남방불교와 티벳불교 등 모든 불교권에서 숭앙받고 있는 보살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제해주는 보살이므로 널리 숭앙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므로 달리 구세자(救濟者)라고도 부르며, 대자비(大慈悲)로써 중생들을 보살피므로 대비보살(大悲菩薩), 대비관음(大悲觀音)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들이 여럿 있는데, 몇몇 경전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포항 수인사 특약전에 봉안된 아미타삼존불의 관세음보살상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7)

육관음보살 (六觀音菩薩)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에 보면, 「만약 갖가지 고뇌를 받고 있는 무량백천만 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칭명(稱名)하면, 관세음보살은 곧바로 그들의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케 한다.」 고 하였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신음하는 중생들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중생들의 다급하고 간절한 소원을 좇아서 해탈케 하는 보살이므로 관세음보살은 전능자(全能者)이며 구세대비자(救世大悲者)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화경(悲華經)」에는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갖가지 공포와 고뇌로 인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외롭고 고독해하며 궁핍하여 구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만약

나를 염(念)하고, 나의 이름을 칭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라도 천 개의 귀로 듣고 천 개의 눈으로 보아서 그들의 고뇌를 구제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이 고뇌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성불하지 않겠다」 고 하였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을 건져내는 보살이므로 구구구난 관세음보살(救苦救難 觀世音菩薩)이라고 합니다. 좀 더 길게 표현하면, 「나무보문시현 원력 홍심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南無普門示現 願力弘深 大慈大悲 救苦救難 觀世音菩薩)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널리 인간세상에 나투시고 원력이 넓고 깊으시며 커다란 자비를 지니시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고아일심구명력(具足神通力 廣修智方便 十方諸國土 無刹不現身 苦我一心歸命禮). 신통한 힘을 갖추시고 지혜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모든 세상에 두루 그 모습 나타내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일심으로 귀의합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기도를 마치고 주로 관세음보살 정경을 합니다만, 진언밀교종단인 총지종은 관세음보살의 명호 대신에 관세음보살의 본심(本心)인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훤」을 본존(本尊)으로 모시고 전심(專心)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에는 관세음보살 대신에 관자재보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의 위신력(威神力)과 그 보살의 본심미묘진언(本心微妙眞言)인 「옴마니반메훤」의 지송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육자진언 「옴마니

반메훤」을 외우므로써, 현세(現世)에 모든 재난을 소멸하고 일체 성취를 이루며, 궁극에는 성불(成佛)을 이루고 내세(來世)에 극락왕생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므로써 얻게 되는 공덕이 무량(無量)하므로 그 이름 또한 여러 가지로 불리지고 있습니다. 구세보살(救世菩薩), 구세대사(救世大士), 대비성자(大悲聖者), 시무외자(施無畏者), 연화수보살(蓮華手菩薩) 등이 그 별호(別號)입니다. 별호에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전반에 걸쳐서 담겨져 있고, 그외에도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무외자(施無畏者)의 경우는 ‘중생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는 분’을 뜻하고, ‘자비를 위주로 하는 보살’이므로 대비성자(大悲聖者)라 하며, ‘세상을 구하는 분’이므로 구세보살(救世菩薩), 구세대사(救世大士)라 하고, ‘연꽃을 들고 있는 보살’이므로 연화수보살(蓮華手菩薩)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은 ‘중생의 구제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지물(持物)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보살이므로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자재보살(觀世自在菩薩)로 번역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śvara)’를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하였는데,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자재보살(觀世自在菩薩)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 경전들이 한문으로 많이 번역되었는데, 번역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AD 3세기경 인도 월지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축법호 스님이 번역한 것을 고역(古譯), AD 4세기경 인도 구자국에서 건너온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을 구역(舊譯), AD 7세기경의 중국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신역(新譯)이라고 구분합니다. 가장 많이 번역한 스님이 구마라집과 현장 스님인데, 구마라집의 번역의 특징은 뜻의 전달에 중점을 둔 의역(意譯)이라는 점이고, 현장의 특징은 원어(原語)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직역(直譯)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구마라집은 관세음보살이라 번역했고, 현장스님은 이와달리 관자재보살이라고 옮겼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불교용어는 대부분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들입니다.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은 ‘자비광명의 빛을 중생들에게 비추어 구제하는 보살’을 말하고,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세간의 음성을 관한다’는 뜻으로 중생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두루 살피시고 들어서 구제하는 보살을 말하며,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지혜로써 관조하여



법경 정사

자재한 묘과(妙果)를 얻어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말합니다.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자유 자재로 구제하므로 관자재보살입니다. 용어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역할이나 공덕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할 수 있습니다.

서방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화신(化身)이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서방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화신(化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서방 극락정토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 가운데 한 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쓰고 있는 보관(寶冠)에는 아미타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 또한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지종은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불공을 올리기 위하여 별도의 전각(殿閣)을 건립하였고, 그전각인 ‘특약전(得樂殿석)’에 관세음보살을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挾侍菩薩)로 모셔놓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화신(化身)인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서방 극락정토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난파, 화재, 암살, 도둑, 사나운 짐승들에 의한 피해 등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주며, 중생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근기(根機)에 맞추어 32가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합니다. 이를 32응신(應身)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나투심은 우리나라의 관음성지라고 불리는 여러 사찰의 전설에서도 많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로 나타나시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32응신의 숫자가 우리 곁에 와 있는 예를 든다면, 바로 불교텔레비전(BTN)입니다. 불교텔레비전 방송국의 채널번호가 32번입니다. 32이라는 숫자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에서 따온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영상을 통해서 일체중생에게 전하고 이로써 고통과 난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20신, 32신, 33신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대개 여섯 분으로 대별(大別)됩니다. 이 여섯 분의 변화신(變化身)을 육관음(六觀音)이라 합니다. 첫째는 성관음보살(聖觀音菩薩), 둘째는 십이면관음(十一面觀音), 세 번째는 천수관음(千手觀音), 네 번째는 준제관음(准提觀音), 다섯 번째 마두관음(馬頭觀音), 끝으로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입니다. 여기에 불공견색관음(不空絹索觀音)을 넣어서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관음보살(聖觀音菩薩)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서 한 손에 연꽃을 든 채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세음보살을 가리킵니다. 십이면관음(十一面觀音)은 머리가 열 하나, 팔이 둘, 또는 빛인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이고, 천수관음(千手觀音)은 1,000개의 팔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고, 준제관음(准提觀音)은 18개의 팔을 가지고 앉아 있는 가장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이며, 마두관음(馬頭觀音)은 말의 머리를 하고 사나운 표정을 하고 있는 보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은 6개의 팔을 지니고 일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 보살입니다. 이 가운데 성관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의 본래 몸(本身)이고, 나머지 다섯은 관세음보살의 변화신(變化身)입니다.

(다음호에서 육관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세음보살상

총지동의보감

안면홍조증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안면홍조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열이 얼굴로 치솟아 붉어지는 증상을 말하며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간에 열이 정체되어 있거나 위장에 열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이 폐경기가 가까워 오면서 자궁을 중심으로 하는 생식기능은 약화되고 반면에 위로 기운이 역상해 심장과 폐를 자극하여 과도한 열이 치솟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젊은 여성이라도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성적이거나 감정의 표현이 소극적이면 기운과 혈액의 정제로 인해서 인체의 상부로 병적인 화(火)가 상승해 얼굴이 붉어지거나 아물러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두통이나 불면 등의 증상을 겪하게 됩니다.

건강한 인체는 소화기인 비위(脾胃)를 중심으로 위로는 심장과 폐, 아래로는 간이나 심장, 자궁이 위치해 서로 화(火와) 수(水)기운이 넘치지 않게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특히 상부로 불기운이 치솟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술을 마시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 등의 해서도 피가 탁해져 열이 가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평소 생활에 있어 이러한 자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음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각각의 원인이 되는 장기와 해당경락(經絡)의 열을 내려주는 청열청혈(淸熱淸血)법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합니다. 갱년기여성들의 경우 약해진 자궁과 난소를 비롯해 주변생식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위로 상승되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 심폐를 안정시키면서 안면홍조를 개선하게 됩니다.

간혹 피부와 관련된 약물을 남용함으로써 인해서 독소가 피부내에 누적되어 붉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우 마찬가지로 피부내의 열독을 풀어 발산시키는 치료과정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벼운 유산소운동으로 심폐기능을 회복해 혈액순환을 돕고 평소 신경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 생리가 불순한 여성들이거나 갱년기여성들의 경우는 요가나 명상 등의 호흡법과 더불어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반신욕으로 자궁순환을 돕고 심폐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김기자가 가다

연꽃으로 피어난 불공의 원력

-인천 지인사 신정희 홍유순 회장의 남다른 가피 이야기

인천에는 총지종의 두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시 북구에서 부평구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 시범사, 지인사 두 사원 모두가 오랜 세월 교화의 도량으로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최근 지인사에는 웃음이 넘치고 있다는 이형자 통신원의 제보를 받은 기자는 그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올해처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면서 무슨 좋은 일인가? 한여름 더위를 불공으로 이겨내서 그런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통신원의 제보에 지인사 승효제 전 수님께 사전 약속을 하고 자승일 불공 때 인천으로 차를 달렸다.

부평은 초행이라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서울 순환 고속도로를 거쳐 송내 나들목으로 진출했다. 직진과 우회전을 거쳐 골목으로 접어들니 바로 지인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잘못된 안내로 골탕을 먹은 적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그 성능에 만족했다.

여러 총지종 사찰을 방문 취재해 보았지만 지인사의 첫 인상은 무척이나 깔끔하다는 느낌이다. 사원 마당을 들어서니,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다. 연꽃을 피운 여러 개의 수조도 보이고, 사원의 분위기는 정말 가꾸진 공원에 온 느낌이다.

자승일 불공을 모두 마친 후 교도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단체 사진을 먼저 찍어드렸다. 기왕 왔으니 최소한의 서비스는 기본 아닌가? 다함께 공양을 한 후, 서원당에서 홍유순 회장과 박옥선 부회장, 최광희, 김태순 감사님과 자리를 마련했다. 김 기자는 회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었다. "회장님, 지인사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나.. 서울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회장님은 수줍은 웃음을 띄우며 "우리 사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꽃들이 너무 예뻐 교도들의 얼굴이 꽃처럼 환해져 그런가 봅니다." 라 말한다. 그러면서 꽃들을 정성들여 가꾸어주신 지성정사님과 승효제 전수님의 여 름동안의 노고에 감사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박옥선

부회장이 "진짜 경사는 회장님 덕에 있습니다."며 "회장님 아드님이 이번에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김 기자의 귀가 번쩍었다. "아 그런 경사가 있었군요."

홍유순 회장님의 아들은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였다. 홍유순 회장의 아들 강인식 소령은 1남 2녀 중 막내로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임관해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 있었다. 어린 첫 먹이 때부터 회장님의 등에 업혀 지인사를 다녔다 한다. 지금도 휴가 때면 지인사에 들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에 감사의 불공을 드린다.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병으로 의무 복무만 하는 것도 아닌 장교로서 병사들을 통솔해야 하는 직책은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홍유순 회장님은 강 소령이 입대하는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위한 불공을 올렸다. 회장님의 불공은 우주법계를 움직여 강 소령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펼쳐진다. 강 소령이 보직을 옮기고 나면 전 근무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전방 GP에서 근무 중, 차량 사고를 극적으로 피한 일 등 모두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던 홍 회장님의 불공의 힘이었다. 군대는 매일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다.

김 기자가 군 생활을 하던 20여 년 전 에도 많은 사고를 목격했다. 지금도 아찔했던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제대로 하고 나서 안 일이지만 우리 모친께서도 매일 양초공양을 올렸다 한다. 위험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 달라고 부처님 전 서원했다고 하셨다. 김 기자가 지금도 부처님 일을 하는 것도 모두가 어머니의 양초공양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 회장님이 총지종에 입교한 사연 또한 남다르다. 경기도 화성의 부유한 집에서 자란 홍 회장님은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인 양장기술자였다. 부평 토박이인 강정희 각자님을 만나 이곳으로 왔다. 당시 부평에는 양장 원단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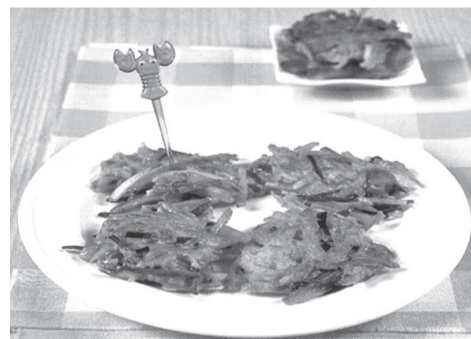
드는 공장들이 있어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 갔다.

1973년 어느 날, 당시 정해원 스승님이 법의를 만들고 자 오셨다. 홍 회장은 단번에 스승님께 반했다 한다. 저리 멋진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남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정해원 스승님의 교화로 바로 총지종에 입교해 오늘날까지 39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정진에 임했다. 홍 회장님의 수행 기간이 바로 지인사의 역사인 것이다. 강정희 각자님도 열정적이다. 사원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고, 홍 회장님이 신정희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참을 넋을 잃고 얘기를 들었다.

지인사가 인천 교화의 중심 도량인 이유가 있었다. 밤낮 없는 수행정진으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두루 미치는 성취의 도량 지인사. 그곳에는 자애로운 두 분 스승님과 사원을 내 집 같이 생각하는 교도들이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원을 나서는데, 배웅해 주시는 홍 회장님과 각자님의 모습이 한 쌍의 연꽃으로 어른거린다. 인천 지인사=김종열 기자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단 호박전 - 간식 같은 반찬



재료 준비

단 호박(중간 크기) 1/2 개, 양파 1/4 개, 부추 반 줌, 베이컨 5 장, 달걀 2 개, 밀가루 5 큰 술, 소금 1 작은 술, 식용유

조리 방법

- 1. 단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씨앗을 파내고 가늘고 짧게 채를 썬다.
2. 양파도 짧게 채를 썰고, 부추는 3~4cm 정도 크기로 썰고, 베이컨을 가늘게 채를 썰어 둔다.
3. 단 호박, 양파, 부추, 베이컨, 달걀, 밀가루, 소금을 넣고 버무려 반죽을 만든다.
4. 식용유를 두른 팬에 숟가락으로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넣고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기타 팁

1. 매운 맛을 좋아하면 반죽에 청양 고추를 잘게 다져 넣으면 좋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생활광고

뷰티의 리머.. 헤어의 완성

『뉴그랜드 헤어샵』

원장 최양희

H.P: 010-8894-9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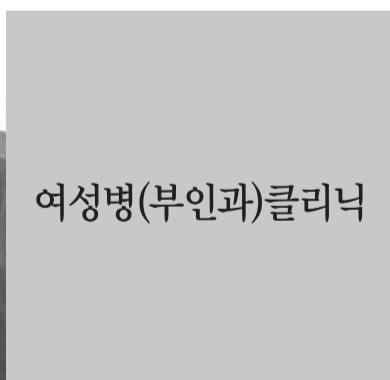
서울 동작구 대방동 20-8



저주파 치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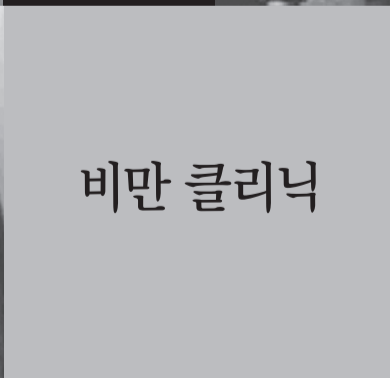
혈액 분석기



온열 전기침



좌훈욕기



비만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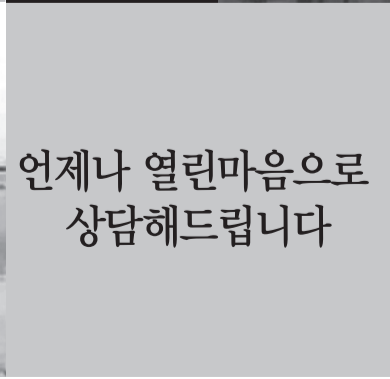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자동팔강진단기



저주파 치료기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 상담 02) 545-0072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여성美한의원

1) 비만클리닉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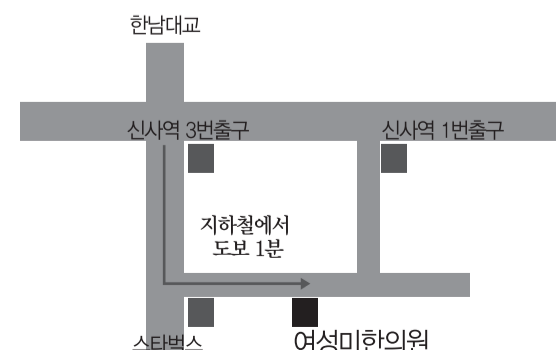
2)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관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장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입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 좌약 요법 (자경단, 요실산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가족클리닉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

오시는 길



진료시간

평일 9:30~18:30 주말 9:30~16:00 점심시간 13:00~14:00

풍경소리

성공보다 중요한 일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쉽고 어려운가, 성공하고 실패할 것인가를
살피지 말고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옳지 못하면
결국 파국에 이르는 법이다.

만해 한용운 | 시인, 독립운동가

가을 낙엽

어느 가을날,
마당을 쓸던 설총이 원효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낙엽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원효 스님은 말없이 낙엽 한 뭉치를 집어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가을은 원래 이러 하느니라."
우리는 매사에 너무 완벽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본래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안병현 | 회사원

이달의 사진

백두산 천지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곳은 지금?



사진 = 백두산 천지 벽룡사 주교 법일 정사

VISUAL 불교총전

글.그림/정수일
<http://www.drawing라훌라.kr>

제 40화

부처님의 생각
중생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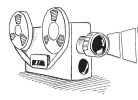
내용참조: "불교총전" 수도편 제4장 146p

암반수로 빛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된장 1kg : 20,000원
간장 1.8L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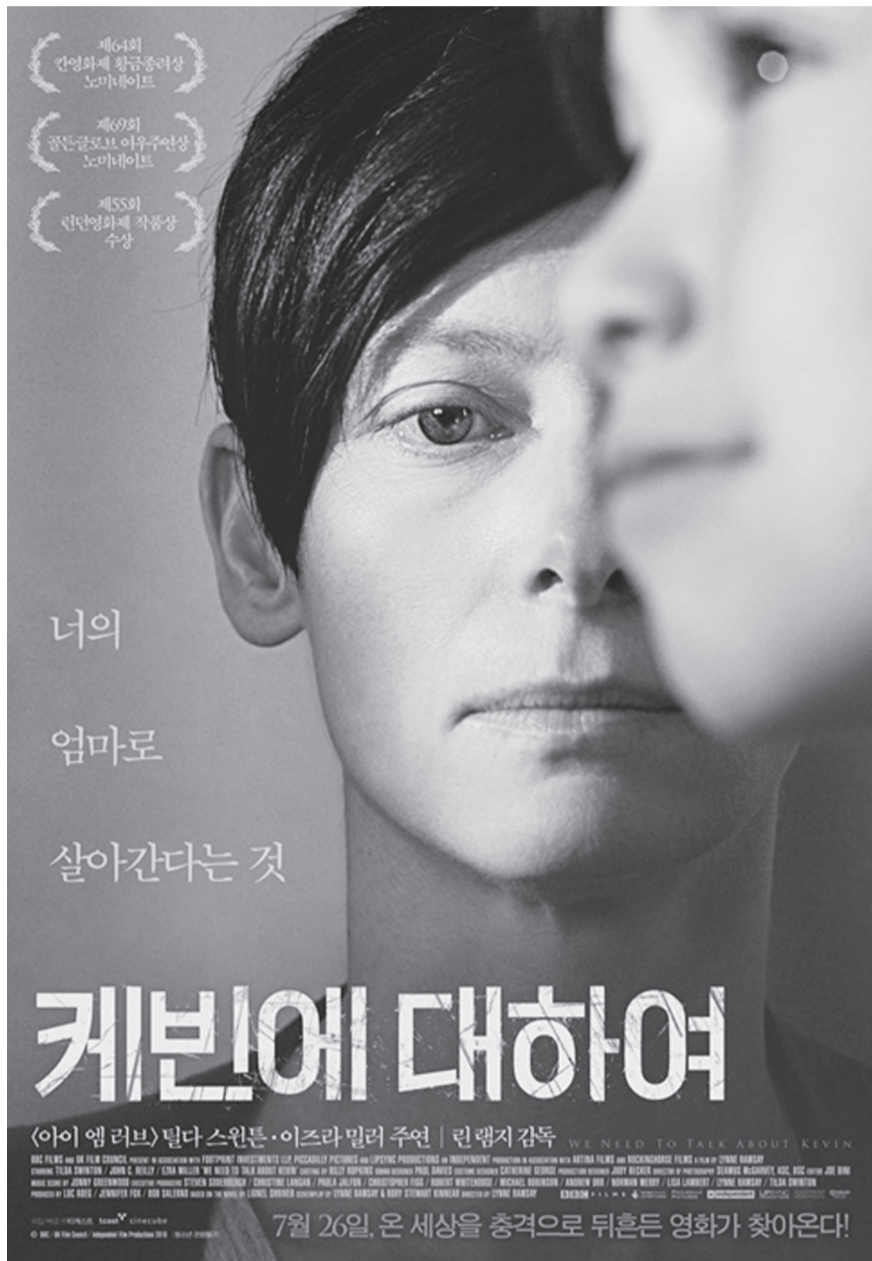




영화에서 불교보기 (24)

수용, 냉혹한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

살인자 어머니 이야기 <케빈에 대하여>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살인자 자식을 둔 부모도 그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도 대량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 자식을 둔 엄마는 더 이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경우입니다. 사지가 찢기는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스런 삶이 그녀의 몫인 것입니다. 내세를 기다릴 것도 없이 현재가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 신이 있어 인간을 이러한 상황에 던져 넣었다면 그 신은 정말로 잔인한 신이고, 그런 처지에 빠진 인간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떨어진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운명에 던져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기에 이런 운명에 빠졌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아들을 둔 불행한 엄마 이야기인 <케빈에 대하여>를 관통하는 끈질긴 의문입니다. <케빈에 대하여>(영국, 2011)는 아들이 대량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으로 떠난 후 남겨진 엄마가 파괴해져 대로 파괴해진 삶을 어떻게 추스르는가가 한 축이고, 다른 축은 아들의 범행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살인자 아들을 둔 엄마의 잘못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영화의 또 다른 축입니다.

<케빈에 대하여>는 영국 출신의 여성 감독인 린 램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린 램지는 경력이 그리 오래된 감독은 아니지만 수상 경력은 화려한 편입니다. 처녀작인 <취잡이>로 화려하게 등단한 그녀는 이 작품 <케빈에 대하여>로 세계 유수 언론의 찬사와 더불어 (제55회 런던 국제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영화제에서 중요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원작인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동명 소설은 영어권 여성작가에게 주어지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오렌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작자와 감독 모두 여성으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모성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인 모성애가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모자관계를 탐색하면서 또한 범위를 확장해서 인간과 신의 관계, 또는 인간의 운명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케빈에 대하여> 라는 영화에 나오는 에바의 아들 케빈은 태어날 때부터 에바를 괴롭혔습니다. 어린 케빈은 한 번 울면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조금 더 자라서 말을 할 무렵에는 말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후기 자폐증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빈은 엄마를 괴롭히는 아이였습니다. 에바가 예쁘게 꾸며놓은 방에 물감을 뿌려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든가, 충분히 가릴 수 있으면서 거지귀에 통을 쓴다거나 하는 것 정도는 어릴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케빈의 반항은 점점 심각해져갔습니다. 어린 동생이 아끼는 애완동물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개수대 구멍에서 죽어있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엄마가 동생의 슬픔을 보면서 더불어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케빈이 한 일이었지요. 햄스터는 약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수구를 뚫는데 쓰이는 화학 물질을 동생의 눈에 닿게 해서 마침내 동생에게서 한 쪽 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빈의 삶은 오직 엄마를 괴롭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에바는 케빈에게서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안 맞는 엄마와 아들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관계가 돼버렸고, 에바도 그렇지만 케빈도 관계를 회복하고픈 어떤 의지도 갖지 못했습니다. 에바는 남편에게 자신이 딸과 함께 살고 아빠가 케빈과 함께 살므로써 떨어져 살자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는 케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엿들은 케빈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엄마가 결코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피의 목요일, 이라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체육관에 몰아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후 화살을 쏘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집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에게 화살을 쏘아 죽이는 사건이었지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케빈의 존재는 에바에게는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직 에바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존재였으며, 케빈의 삶은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에바는 케빈이라는 암을 언제나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케빈은 비록 감옥으로 떠남으로써 에바를 떠났지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를 채워놓은 것입니다. 살인자의 엄마라는 족쇄를 채워놓음으로써 영원히 자신에게 묶여둔 것입니다.

아들이 살인자가 돼 감옥으로 떠난 후 에바의 삶은 지옥으로 추락합니다. 남편과 딸은 죽고 아들은 감옥으로 가고, 가족은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에바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고, 번듯하던 집에서 내몰려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의 살인으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밖에서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아들의 만행으로 인해 자식을 잃은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하고 가끔 만나게 되면 빵을 맞고 적극적인 또 누군가는 에바의 집과 차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 놓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지옥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이라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바는 참 강한 여자입니다. 지옥에서 잘 버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음으로써 복수하겠다는 사람처럼 죽음을 다해서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잘 살아남습니다. 에바의 고군분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군가 뿌려놓은 붉은 페인트로 뒤덮인 집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딱딱하게 달라붙은 페인트는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에바는 기계를 이용해서 매일 열심히 조금씩 페인트를 벗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은 말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처음처럼 말끔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삶에 대한 에바의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는 모티브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아들을 면회 가는 장면에서 구체화됩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에바는 아들을 면회했습니다. 이제 만 18세가 돼서 성인교도소로 옮겨지게 된 아들은 조금 불만해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에바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모르겠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 물음은 살인 보다는, 왜 엄마를 괴롭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 속에는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엄마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들이 이유 없이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런 아들을 용서한 것이고, 또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바는 아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에바는 아들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아들이 살인자고,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지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에바의 집에 종교인이 찾아와서 “내세를 믿습니까?”했을 때 에바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이미 지옥행 티켓을 끊어놓았다고. 에바야말로 삶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고, 삶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말로 실감한 경우입니다. 깨끗하게 그 지옥을 버려내는 것이 에바가 짊어진 몫인 것입니다. 에바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안았던 것도 비록 이런 척박한 삶이지만 기꺼이 받아들여겠다는 수용의 의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용의 의지가 있으면 참담한 현실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면 어긋난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아들을 ‘인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잔인한 인생

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원칙도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인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처럼 인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형벌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형벌에 인간이 대처하는 방법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등짐을 날랐던 시지프스처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짐을 기꺼이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영화의 논리입니다. 사이코패스와 모성애, 라는 색다른 소재를 사용했지만 실존주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는데 고통스런 삶을 다루는 서구 영화들의 일반적인 해석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만약 불교적 관점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결론은 같을 지라도 고통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에바의 고통에 원인이 없는 결론으로 표현했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인과와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에바에게서 분명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현재에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전생까지 소급해서 생각하고, 아마도 원수가 아들로 태어난 경우라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들로 인한 고통은 이제 빛을 갖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훨씬 적극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불교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훨씬 신뢰감을 갖는 편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 존재하고, 공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보는 편이므로 에바의 불행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에바가 당연히 짊어져야 뒤편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김은주 <자유기고가>

